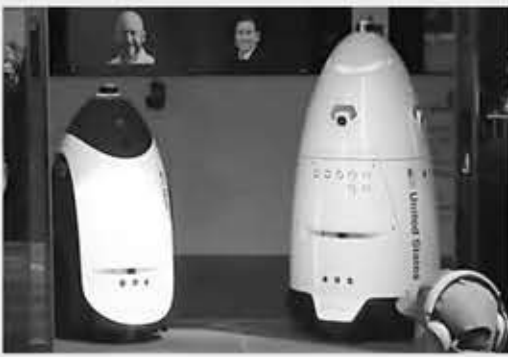


뉴욕시, 자율형 순찰 로봇 도입



▲ 뉴욕시 경찰국이 도입하는 순찰 로봇 스니치봇
사진=유튜브(뉴욕시경찰) 캡처

뉴욕이 순찰 로봇을 도입한다.

17일 '스푸트니크'(sputnik.kr)에 따르면 뉴욕 경찰국(NYPD)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경찰을 지원할 자율형 순찰 로봇 스니치봇(SnitchBOT)을 현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.

스니치봇은 타임스퀘어와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뉴욕시 주요 시설의 순찰을 담당하게 된다. NYPD는 최근 경찰 인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로봇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.

뉴욕시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사의 개 로봇 스팟을 경찰견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3대를 시범 운용 중이다. 여기에 스니치봇 세 종류를 추가하면서 뉴욕시는 로봇이 치안을 일부분 책임지는 도시가 됐다.

스니치봇은 높이 1.68m, 무게 181kg이며 시속 약 5km로 이동 가능하다. 몸체에 마이크와 360° HD 카메라, 음파 탐지기, 레이더 센서를 탑재했고 도주 차량 확인을 위한 라이선스 플레이트 판독 기능도 갖췄다. 24시간 단독 가동할 수 있으며,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 충전도 가능하다. 스니치봇의 임대료는 7개월간 1만2,250달러로, 유지 보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인간 경찰의 보수보다 돈이 덜 든다는 게 뉴욕시 설명이다.

우려도 없지 않다. 스니치봇은 워싱턴 DC에도 도입됐는데, 이유도 없이 물에 스스로 빠져 망가진 일이 있다. 일부에서는 로봇이 강도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막아줄 리 만무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.

'로맨스 스캠' 기승... 작년 피해액만 13억 달러

미국에서 이성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'로맨스 스캠'(Romance Scam)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.

19일 '경향신문'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업체 '소셜 캣피쉬'(Social Catfish)는 전날 미 연방수사국(FBI)·연방거래위원회(FTC)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로맨스 스캠의 피해액 규모는 총 13억 달러, 피해자 수는 약 7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. 이는 2021년 5억4,700만 달러 대비 138% 증가한 수치이다.

소셜 캣피쉬는 "정부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데이팅 앱 사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관심을 모았지만 로맨스 사기 규모는 전혀 없이 커지고 있다"고 전했다.

주별 피해 규모는 캘리포니아주가 피해자 2,189명에 피해액 총 1억5,100만달러로 1위였다. 이어 텍사스, 플로리다, 뉴욕, 애리조나, 버지니아, 워싱턴, 오하이오, 노스캐롤라이나, 일리노이주가 차례로 2위~10위를 차지했다.

로맨스 스캠에 가장 많이 사용된 금전 지급 방식



▲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로맨스 스캠 피해액 규모는 2021년 대비 138% 증가했다. 사진=shutterstock

은 상품권(24%)이었고 그외 가상통화(19%), 지불 앱(15%), 계좌이체(14%) 등이었다.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지불 수단은 가상통화(34%), 그 다음이 계좌이체(27%)였다.

로맨스 스캠에 가장 자주 사용된 거짓말은 "내가 (또는 가족이) 아프다·다쳤다·수감됐다" (24%), "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" (18%), "해외에 파병된 군인이다" (18%), "중요한 물건을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" (18%), "결혼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" (12%) 등으로 나타났다.

"미국인 69%, 미국 경제 부정적"

지속적인 인플레이션, 높은 금리,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미국인 10명 중 7명가량이 미 경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.

18일 '아시아경제'에 따르면 CNBC는 이날 미 전역의 1,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경제조사 결과, 응답자의 69%는 현재와 미래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. 이는 해당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. CNBC는 "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 이보다 더 부정적인 때는 없었다"고 분위기를 전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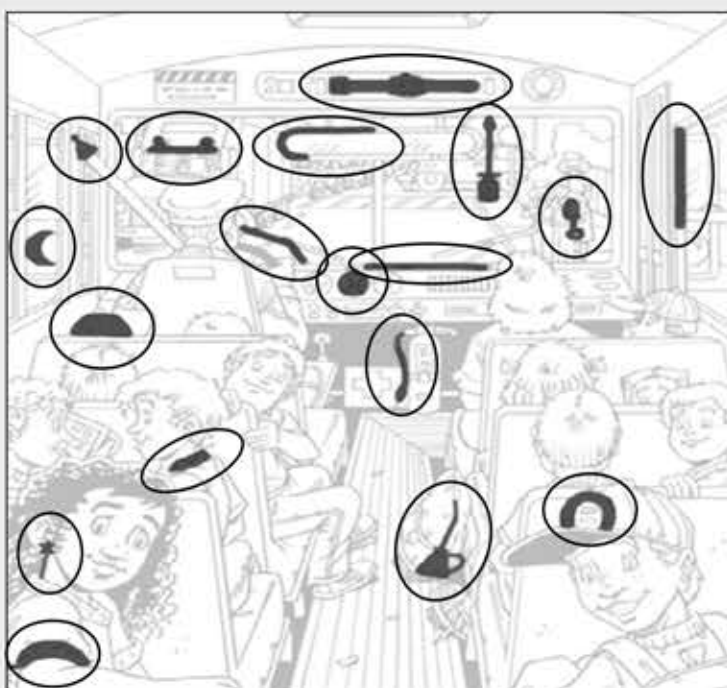
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7%에 달했다. 가계 소득이 인플레이션과 보조를

맞추고 있다는 답변은 26%,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답변은 5%에 그쳤다.

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지출,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있다는 응답자들도 다수였다. 전체 응답자의 81%는 엔터테인먼트 지출, 여행을 즐기거나 비용 지출을 위해 기존 저축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. 노동계급의 51%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다만 취업한 미국인의 63%는 실직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작년 11월 조사 당시보다 5%포인트 높아진 수치다. 또한 응답자의 37%는 내년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.

숨은그림찾기 정답



날말퍼즐 정답

1 격			2 이	주	3 민		
납		4 길	치		5 가	로	6 수
7 고	8 물	상		9 파			의
		동		10 병	가	11 상	사
12 우	이	독	13 경			당	
등			주		14 물	수	15 건
16 생	고	17 집		18 도	리		망
		19 착	수	금			증